

• 행정안전부(주) • 한국장애인복지재단
• 행정안전부(주) 한국장애인복지재단



코헴

KOREA HEMOPHILIA FOUNDATION



2003. 2



코헴

KOREA HEMOPHILIA FOUNDATION

2003년 2월호(제47호)

· 발 행 일 / 2003. 2. 15 .

· 발 행 인 / 유 명 철

· 편집인 / 윤 기 중

· 발 행 처 / 사회복지
법 한국혈우재단

· 인 쇄 인 / 예드워드 정태인

☎1372-017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26번지

전화:3473-6100 FAX:3473-6644

e-mail:kohem@kohem.org

Home Page:http://www.kohem.org

2003 2월호

C · O · N · T · E · N · T · S

초대석/

혈우가족의 처지를 가슴으로 느끼며 기분좋은
진료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3

김영호(재단의원장)

재단 활동/

강원지역 혈우가족 방문교육 실시 - 5

유전자 검사실 '크린 벤치' 설치 - 6

재단, 설 맞아 봉사활동 펼쳐 - 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유권해석 요청 - 7

혈우명 정보/

복지부, 지원달라자 위한 건의안 마련 - 8

'혁신인 수거·폐기 명령 부당' - 10

혈우병에 유용한 인터넷 웹사이트 - 16

특집/

좌담 - 혈우인의 취업과 사회생활 - 11

나의 취업 경험담 - 14

김영학

세계혈우연맹/

동증과 출혈 예방 위한 고정신발 착용 - 18

수필/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며 - 21

안진화(경인구 어머니)

코헴회 소식/ 23

묵묵히 봄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숨쉬기도 힘들 정도의 찬바람이 몰아치던 소한 추위에 한강이 풍뎡 일었다 싶더니 설이 지나자 바람결에서 봄의 향이 풍겨나는 듯 합니다.

사실 봄은 이미 지난 가을, 낙엽을 떨군 가지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때, 나무는 그 양상한 가지에 새 잎의 눈을 아무도 모르게 매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눈 여겨 봐주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데 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침 마련, 유전자 재조합제제 수급과 관련한 최근의 과정에서 재단의 역할과 해야 할 일을 보다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혈우가족 여러분은 아무 소식도 없어 관련 부처의 움직임이라도 알고 싶는데 재단은 아무 소리도 않고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공문을 보내고, 계속 접촉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많이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강이 일었다고 해도 그 아래로 강물은 유유히 흐르듯이, 벌판 위에 하얗게 눈이 덮여 있어도 그 아래 땅에는 온갖 동물이 겨울을 보내고 있듯이, 재단은 그렇게 일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마음에 또는 열심히 일한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 앞서 나가다가 실망과 피해를 안겨주는 것보다는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정확한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혈우가족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재단의 활동을 통하여 매일 중순에 여러분을 찾아가는 '코헴'지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제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 봄에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혈우가족의 처지를 가슴으로 느끼며 기분 좋은 진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김영호 <재단의원장>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는 조금씩 햇살의 기운이 강해지
는 것을 느낍니다. 움츠려들었던 어
깨도 펴지고, 아울러 우리들의 마음도 기지개를
펴는 봄이 다가오나 봅니다.

코헬 가족 여러분, 안녕하
십니까? 혈우재단 의원장 김
영호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을 졸업하고 동 대학 부속병
원에서 소아과를 전공으로 수
련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
습니다. 그 이후 봉직의와 개
업의로 근무하였고, 올해로
의사가 된 지 11년째가 됩니
다.

혈우재단의원의 자리를 제
의받고 처음엔 약간 머뭇거리
기도 하였습니다. 질병을 전
반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사가
한가지 질환에만 매달리는 것이 의사에게 마이
너스 요인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대학병원의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님들이라면 모를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일개 의원에 근무하면서 전체 인
구의 0.005~0.01%에 불과한 질병에만 매달리다
보면 나중에, 혈우병이 아닌 다른 환자들을 진료



하게 될 때 다른 의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
처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말입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 많은
의사들 중에 희귀질환인 혈우병을 치료하는 의
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말고도 일반적인 질병을 치
료할 의사는 우리나라에 넘쳐
나도록 많이 있다. 혈우재단
의원에 근무하는 것도 한 번
해볼만한 보람있는 일이다'
그 후 이사장님과 상무이사님
의 면접을 통한 후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두 달 남짓 근무
하면서 혈우병의 심각성을 점
차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팔,
다리가 굳어져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 또 주사 맞기
싫으면서도 평생 맞아야 하는
주사이기에 어쩔 수 없이 팔

을 내미는 어린 친구들,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출혈이 일어나도 사정상 바로 응고인자를 투여
하지 못해 통증과 함께 퉁퉁 부어오른 관절을
내 보이는 분들, 언제 어디에서 출혈이 일어날지
몰라 항상 조심하면서 사는 혈우 가족들의 처지
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아픔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움츠러 들지 않고 의연히 살아가는 혈우환우 여러분이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을 볼 때 '인간 승리'라는 어휘가 떠올려 집니다. 저도 혈우환우 여러분들이 '혈우병'이라는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걷게 될 때 그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일본을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사카에서 전철로 1시간 30여분 걸리는 곳에 위치한 '나라현립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병원장이자 소아과 교수이신 아키라 요시오카 교수님을 만나고, 그 분의 진료하는 모습도 보고 궁금한 점도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일본에도 혈우병을 치료하는 병원은 여럿 있지만 나라현립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세계혈우연맹'으로부터 '국제혈우병 교육기관(international hemophilia training center)'으로 지정된 곳으로, 요시오카 교수님도 혈우병과 관련된 국제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시는 등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혈우병에 관한 권위자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저와 대화하시는 동안 매우 친절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임해주셨고 질문을 하나 하면, 그것에 관한 답변과 함께 관련자료를 바로 구해 주시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요시오카 교수님과 만남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혈우병에 대해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동기유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갖기로 한 점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얻은 귀중한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나라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했더니, 대학병원의 특성상 혈우병에 국한하여 물리치료실을 따로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물리치료 분야가 약한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재단의원의 물리치료실이 혈우환우에 대해 전문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우수한 물리치료사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우환우 여러분에게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끝을 맺을까 합니다.

진료시 의사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환자에게 반말을 툭툭 내뱉는 불쾌감을 주는 의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의사들은 서서히 도태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를 당혹케 하는 것은 일부 고압적(?)인 환자들 또는 그 보호자들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시고, 5분만 참아주세요. 또 껌은 부디 빨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상담하는 동안에 핸드폰을 받고 - 어떤 분은 걸기까지 하시더군요- 껌을 ' 짹짹' 소리내며 씹는 분들은 정말 진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또한 극히 일부이지만, 처음 보는 원장에게 마치 후배를 대하듯 하는 분도 있더군요. 연령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제가 이곳에 '원장'으로 여러분의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 그것에 걸맞는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한 여러분들을 예의 있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분 좋게 진료 받고, 기분 좋게 진료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혈우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롬



강원지역 혈우가족 방문교육 실시

1월 11일 김영호 원장 등 참가

한국혈우재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 혈우가족 방문 교육'의 첫 번째 순서로 강원지역의 혈우가족 방문교육이 지난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원주 SK텔레콤 사옥에서 진행되었다. <사진>

김영호 재단의원장 등 재단 직원 7명과 20여명의 강원지역 혈우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김영호 원장과 이강익 사무국장의 인사에 이어, △재단의 지원사업 안내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김영호 원장의 혈우병에 대한 강의 △물리치료 교육 △유전자 검사 안내 △자가 주사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직원들이 준비한 자료를 대형 화면으로 투사하여 참석한 혈우가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또 자가 주사교육 중에 김영호 원장을 비롯하여 의료비 지원, 물리치료,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한 상담을 함께 실시하기도 하였다.

재단의 지방 혈우가족 방문 교육은 지난 해 실시한 지방 주사교육을 더욱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방의 혈우가족에게 혈우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각종 지원사업을 설명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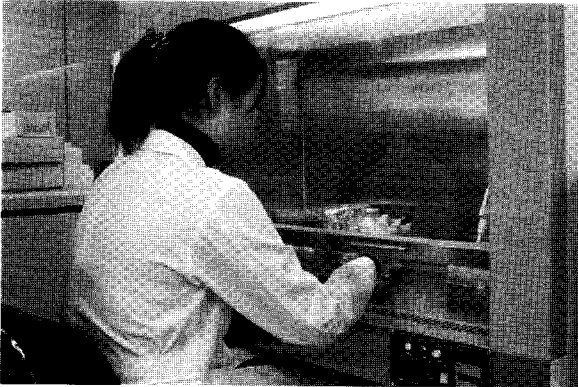
▲ 준비한 영상자료를 보며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참석자들.

방문교육은 부산지역으로 2월 9일 오후 1시부터 부산지회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지방 혈우가족 방문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코험 지회가 '코험회 사무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앞으로 4월부터 진행될 방문교육에 대하여 코험회 사무국과 각 지회가 협의하여 시기와 장소, 시간을 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방문교육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재단 휴무일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3월과 11월은 재단 워크숍, 8월은 코험 여름캠프로 인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유전자 검사실 ‘크린 벤치’ 설치 무균상태에서 정확한 검사 가능



유전자 검사실은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지난 1월 14일 ‘크린 벤치(Clean Bench, 모델명 GH-1400)’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사진>

크린 벤치는 고성능 무균 작업대로서 쉽게 오염되거나 감염될 수 있는 무균조작에 사용되며

실험자의 안전을 균으로부터 가장 완벽하게 보장 해주며, 생물학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실험대상물을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설비 중 하나이다.

이번에 도입한 크린 벤치는 Class 100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비로 1m³에 존재하는 균이 100개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크린 벤치의 도입으로 인하여 PCR검사를 위한 시료 준비와 DNA 추출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PCR 검사의 경우 소량의 샘플을 확대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적은 양의 오염도 검사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크린 벤치의 도입이 절실하였다.

재단, 설 맞아 봉사활동 펼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혈우재단은 지난 1월 25일 그동안 직원들이 마련해온 성금을 장애인단체와 무의탁노인에게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사진>

이번 성금전달은 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복지법인의 참뜻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서울시 장한평 소재 재가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서울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문희정 선생의 도움으로 은평구 관내의 무의탁노인 10명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이중 두 집을 방문하여 위로하였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관련 유권해석 요청 '치료에 저항성인...' 조항으로 불이익 발생

재단은 혈우병 환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치료에 저항성인 혈우병'이 명시되어 있어 탈락하는 사례가 있다는 혈우가족의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 인사국 고시과에 이 조항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지난 1월 20일 요청하였다.

재단은 공문을 통하여 '혈우병은 선천성 출혈 질환이나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요법을 통하여 정상인과 같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질환으로 한국혈우재단은 그동안 사회의 이면에 있던 혈우병 환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의학용어가 아닌 '치료에 저항성인 혈우병'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더불어 '또한 충분히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사회참여를 통하여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조금이라도 보

답하고자 하는 혈우병 환자의 뜻을 헤아려 상기 조항을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재단의 요청에 대하여 고시과 담당자는

지난 1월 29일 유선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앞으로 이 조항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사회생활이 가능한 혈우병 환자를 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여 이 조항을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삭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각 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일반기업의 채용과정에서도 혈우병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코멘트





소득·재산 기준 각각 상향 조정될 듯 복지부, 지원탈락자 위한 건의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2003년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침과 관련하여 혈우병 환자에 대한 소득·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소득이 기준에서 50만원 미만 초과하는 혈우병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건의안을 마련하였다.

이 건의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복지부는 건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9일 오후 2시부터 정부 과천 종합청사 안내실 2층에 있는 귀빈 식당에서 한국혈우재단, 한국코렘회, 희귀난치성 질환 연합회, 신장장애인협회 등 관련 질환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개된 기준은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400%로, 1~3인 가구의 경우 3백14만7천3백8원이었으나 4백5만2천1백55원(가구별 최저생계비의 500%)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재산기준 또한 1~2인 가구 기준 3억3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소득기준에 의해 탈락되는 환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수급자 중 소득기준에 의해 탈락되는 경우 '소득이 50만원 미만 초과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50%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건의안도 마련하였다.<표 참조>

복지부는 또한 기존의 '재산기준 특례'에서 '기타 재산의 소유 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등록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또는 아파트) 거래시(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전세가)가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가능'하다는 항목이 실 재산가액이 높은 경우에도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농지, 축사의 경우에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혈우병 환자의 소득기준

<단위 : 원>

	1~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	4,052,155-	5,097,055-	5,795,350-

혈우병 환자의 재산수준

<단위 : 백만원>

	1~2인 가구	3~4인 가구	5인 가구
재산기준	360	380	420

50% 지급 소득기준

<단위 : 원>

	1~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	4,552,155-	5,597,055-	6,295,350-

이에 대하여 △재산기준 6천만원 미만 초과자 △실건평 32평 미만 등의 상한선을 마련한다는 방안이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 문제

환자가구 조사 대상자가 배기량 2,500cc급 이상의 개인용 고급 승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 '배기량 2,500cc급 이상의 개인용 고급 승용·승합 자동차를 소유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혈우병 환자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입원 진료비 지원의 상한액 지정

복지부는 '혈우병 환자의 주요 합병증인 출혈로 입원한 경우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부위에 따라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비 지원액이 크다'는 이유로 입원 진료비 지원에 대하여 △혈액응고제에 한하여 지급 △수술시 연 1회에 한하여 지급 △합병증 치료 또는 수술의 경우 지급 기준액의 2배 수준에서 상한액 설정 등의 건의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복지부의 안에 대하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재단은 '혈우병 환자의 경우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면 출혈이 있어도 혈액응고인자제제의 투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이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대상 탈락자도 예외를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원 진료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둔다면 혈우

병 환자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부양의무자 가구 포함 대상자 규정

기존 지침의 경우 '직계혈족 1촌까지'라는 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혼선이 초래되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특정하여, 출가한 딸과 사위, 며느리는 부양의무자 가구 포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도록 건의안을 마련하였다. 또 여성환자가 결혼하여 출가한 경우에 친정부모나 시부모의 재산조사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2월 중 지침안 마련될 듯

이날 간담회는 한국혈우재단 외에도 한국코렘회, 신장재단, 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등에서 참석하여 각 질병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건의안 자체도 지침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말 그대로의 '건의안'인 상태이다.

코렘회는 HIV감염 환자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조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재단은 복지부의 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2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며, 혈우가족이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2003년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지침은 복지부가 마련한 건의안과 각 질병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 빠르면 2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

‘핵나인 수거·폐기 명령 부당’ 서울행정법원, 녹십자 승소 판결

혈액응고인자제제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사유로 지난 2000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녹십자에 관련 제품에 대해 수거·폐기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2년 12월 27일 선고공판을 통해 “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청은 2000년 1월 국립보건원과 미국 CDC의 ‘바이러스 검출’ 통보를 근거로 녹십자의 혈우병 치료제 4종(22개 제조번호분)에 대한 수거·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2001년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식약청은 당시 검사를 맡았던 국립보건원과 협의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번 판결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소결론’ 원문이다.

이 사건 제품 가운데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는 6개 로트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검사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의 송기준 교수와 공동으로 한 검사결과,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의 검사결과, 일본의 SRL의 2회에 걸친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아니하는 등 동일한 시료를 다른 실험자가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에 의한 검사를 하였음에도 모두

검출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국립보건원에서는 동일한 실험자가 동일한 시료를 가지고 한 1차 검사시 124개 제조번호 중 6개 제조번호에서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가 2차 검사시에는 1개 제조번호에서만 검출되었고, 다시 3차 검사시에는 전혀 검출되지 아니함으로써 제1, 2차 실험 결과를 선뜻 믿기 어렵게 되었고, 미국의 CDC의 검사결과도 1차 검사시에는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가 2차 검사시 1개 제조번호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이나 이 역시 일정한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어 신뢰가 가지 않는다.

또한 국립보건원과 미국의 CDC검사에서 위 제품과 A형 간염환자의 혈청에서 검출된 간염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신뢰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립보건원과 미국의 CDC의 검사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 의하고 있어 극소량의 오염이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다가 A형 간염환자의 혈청을 함께 실험함으로써 오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6개 로트에서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중략… 그 후 원고의 계속된 공동 재검사 주장에 대하여 국립보건원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실험단계에서의 결함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제품 중 6개 로트를 제외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하여는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코업